

중소대출 늘리는데... 시중銀 신용 리스크 ‘주름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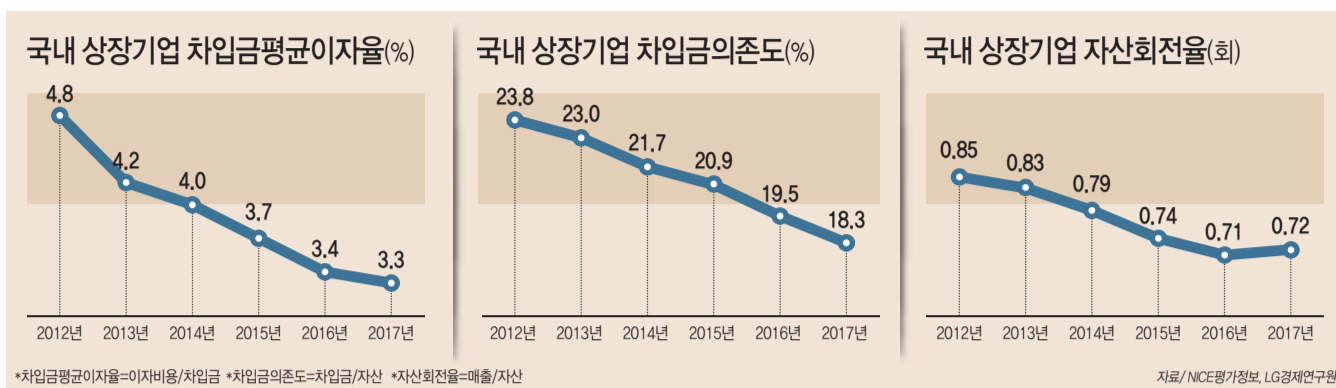
중소 연간 이자부담액 증가율 커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 3%P ↑
상장기업 한정해도 비율 증가세

오르는 금리에 시중은행의 주름살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이 늘면서 부실이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은 차입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자보상배율이 9에서 7.9로 하락하는데, 예년(2012~2016년 평균 4.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하락하는 기업 비중은 2017년 상반기 기준 33%에서 34.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소기업 연간 이자부담액 증가율(17.7%)이 대기업(14%)보다 더 크다.

지난해 말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



해 “전체 가계 및 기업 모두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가계소득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 특히 부실기업이 그렇다.

국내 기업 10곳 중 1곳은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부채 원리금을 상

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경제연구원원의 ‘한국 기업 부채상환능력 문제없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중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기업 수 기준)은 11.8%로 전년(8.9%)보다 3%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신용평가회사인 NICE평가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 이하면서 영업활동 등으로 창출한 현금(EBITDA) 대비 차입금 배율이 5이상일 때를 취약기업으로 분류한 결과다. 전자는 기업의 이자상환능

력, 후자는 원금 상환 능력을 각각 뜻한다. 취약기업 비중은 2012년 14.2%에서 2016년 8.9%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급등했다.

상장기업으로 한정했을 때도 비율은 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유가증권 상장사는 37개사로 6개월 전(25개사)보다 48% 증가했다.

당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사정

은 달라진다.

회사채 우량등급(AA-)과 비우량등급(BBB-)의 금리차는 2016년 6.04%포인트에서 지난해 6.23%포인트로 확대됐다.

LG경제연구원 이한덕 연구위원은 “취약기업은 특히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비용 증가와 단기 집중된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량 중소기업이 한정되어 있고, 금리인상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은행 자금수요가 큰 중소기업 대출성장률이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중소기업 대출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건전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은행, 가계·부동산에 대출 치중”

금감원 ‘국내은행 자산운용 현황’

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손쉬운 가계·부동산담보 대출에 치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자율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운 만큼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의견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국내은행의 연평균 총자산 성장률은 3.6%로 연평균 명목 GDP성장률 5.1%를 밑돌았다.

금융위기 직전에는 2007년 11.7%, 2008년 21.8%로 중소기업대출 확대전락 등으로 명목 GDP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2363조원으로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각각 74.6%, 15.9%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채권 비중은 금융위기 당시 67.7%에서 원화대출금을 중심으로 지속이 늘었다. 반면 유가증권 비중은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주식보유 축소와 기업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회사채 보유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은 지난해 말 기준 1526조2000억원이다.

기업대출이 54.2%, 가계대출이 43.8%로 기업대출의 비중이 아직 높지만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 5.4%를 앞서는 상황

이다. 가계대출을 부추긴 것은 수요와 공급 모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했지만 대기업 대출수요는 업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조정 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은 가계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이후로는 가계대출 이자수익률이 기업대출을 웃돈데다 기업대출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손률도 높았다.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이 심화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편중됐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3년 9.8 ▲2014년 9.9% ▲2015년 14.2% ▲2016년 9.1% ▲2017년 10.6% 등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비중 역시 2013년 30.2%에서 작년 39.2%까지 빠르게 높아졌다. 저금리·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했고, 은행도 담보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한 것이 맞물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와 함께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므로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1년 계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금융위, 향후 추진방향 발표

“소비자 위한 금융정책 추진할 것”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 1년넘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에서 ‘상반기 금융현장 개선사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권별(은행·금융·보험·여전) 현장메신저 12명과 금융위 중소기업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 및 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



지난 9일 개최된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작년 5월 국회에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메신저들의 현장점검을 통해 보험 중복가입 방지, 카드결제 알림문자 제공 등 다양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해 왔으며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19회 방문, 2483명 면담을 통해 1606개 과제를 발굴하고 953건을 개선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IBK기업은행 희귀·난치병 中소 근로자에 치료비 전달

IBK기업은행은 19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105명에게 치료비 7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중기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 중이다. 지금까지 중증질환자 2094명에게 치료비 91억원과 중기 근로자 자녀 6689명에게 장학금 102억원 등을 후원했다.

한편 이날 치료비 전달식에는 기업은

행 홍보모델인 배우 이정재가 참석했다. 지난 5일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희귀난치질환인 확장성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환우와 가족을 격려하고 선물을 전달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회공헌사업으로 IBK 동반자 금융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KEB하나은행 “아동수당 받고 푸짐한 경품도 받고”

KEB하나은행은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아동수당 수급계좌 신청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9월 21일로 예정된 첫 아동수당을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로 수령 시 자동 응모되며 1등(1명) LG건조기, 2등(1명) 다이슨청소기, 3등(10명)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5만원, 4등(288명)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1만원 등 총 300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신청하고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1Q뱅킹)에서 이벤트를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5천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1차(2018년 6월20일~7월31일)와 2차(2018년8월1일~9월20일)로 나누어 시행되며 각 회차별 500명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아동수당 입금 시 압류 방지가



되는 ‘KEB하나행복자킴이통장’에 만5세 이하 가입자에게는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아이꿈하나적금’에 아동수당 관련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